

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양종욱 대건 안드레아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966-8206)
사무실: 703-968-3010
팩 스: 703-968-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이 메 일: sthasang@gmail.com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목,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5,5) · 희망의 순례자들

이민자들을 향한 우리 교회의 입장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결심을 믿어주십시오."

가톨릭 주교회의 목소리.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USCCB)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이민법 집행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고통받는 이민자들과의 연대를 천명했습니다.

주교위원회 위원장 브로글리오 대주교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질서와 안전은 중요하지만, 이민자들의 존엄성과 공동선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 이웃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까지도 자의적으로 체포되고 추방되는 현실은 우리의 친구, 이웃, 가족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결심을 믿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합시다.

이민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정의롭고 인도적인 해결책을 위한 교회의 노력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언제나 약자와 함께합니다.

 가톨릭 봉사 단체들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 동참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 이민자도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워크캠프 후기



Michael Koo

워크캠프에서 성체 조배와 고해성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고해성사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솔직히 고백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배 시간 동안 예수님께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 고해성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받은 은총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Allen

처음에는 워크캠프가 단순히 노동과 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체 조배와 고해성사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고해성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신부님과 진심을 나누는 대화였고, 조배 시간은 정말 하느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Nathan

처음엔 찬양하는 게 부끄러워서 조용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가 자기 자신보다는 하느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Juwan

다른 본당 친구들과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니, 처음보다 훨씬 더 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복잡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Michael Kim

성체 조배 시간에 다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며 기도 지향을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또 하루 중 언제든지 경당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본당 외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Paul

이번 워크캠프는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함께한 크루와 본당, 프로그램 모두 덕분입니다. 믿음도 성장했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일터의 작업량도 도전적이었지만 안전했고, 전반적으로 즐거우면서도 신앙적으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Aidan

프로그램 중 찬양 시간이 정말 아름다웠고, 그 시간을 통해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Lillian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지내며, 제 자신에 대해 더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마음의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업이 힘들고 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고생이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Veronica

워크캠프에서 주교님의 축복을 받고, 처음으로 주님의 존재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전환점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지만, 하느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Jake

이번 워크캠프 참여가 저에게는 많은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워크캠프에 참여하는것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의 신앙생활도 성당에 가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워크캠프에 참여를 하면서 하느님의 존재를 느꼈고 하느님과 나와 연결됨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첫 워크캠프가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Audrey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고 지역사회를 돕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훨씬 깊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 나은 신앙인일 뿐 아니라, 더 나은 이웃, 친구, 딸, 그리고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Anne

처음에는 워크캠프에 대해 회의적이고 망설이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몰입하면서,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하고 아름다운 경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교구 안의 다른 본당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CYO WorkCamp

1. 일시 : 6/21(토) - 27(금)
2. 학생 : 12명
3. 컨트랙터: 2명
4. 크루 : 4명
5. 스테이크홀더 : 1명



구아름 선생님!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에너지,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려는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교회의 미래뿐 아니라 현재에도 깊은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 역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더욱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캠프가 가능하도록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본당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생들과 그 가족들, 봉사자분들, 그리고 늘 따뜻한 지지와 동행을 해주신 배 신부님 과 양 신부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학생들과 어른 봉사자들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 1. 세계 선교를 위한 2차 헌금

- * 다음 주일(7월 12-13일)에는 알링턴 교구가 선정, 지원하는 세계 선교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 CFIC 수도회에서 알바니아 선교를 위한 헌금이며 선교 활동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arlingtonmissions.org/mission/cfic-mission-in-albania/>
- * 이 웹사이트에서 직접 도네이션 하셔도 됩니다.
<https://arlingtonmissions.org/mission/cfic-mission-in-albania/>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2. 연중 14주간 모임 안내

- * 7월 6일(일) : 성모회 임원 회의(오후 1시),
남성 꾸르실로 참가자 환영회 (오후 5시)
- * 7월 12일(토) : 유아세례(오후 2시),
애난데일 구역 미사 (오후 3시)

□ 3. 연중 15주간 모임 안내

- * 7월 13일(일) : 꼬미시움 월례회(오전 11:30)
K of C 월례회의(오전 9:30)
예비신자와 회장단과의 만남(오전 11:30)

□ 4. 7월 구역 봉사자/단체부 소식

- * 7월에는 구역부, 단체부 봉사자 회의는 없습니다

□ 5. 다니엘 수녀님 연피정

- * 다니엘 수녀님께서 7월 14일(월)부터 22일(화)까지 연피정을 가십니다.
행복한 하느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도록 피정 기간 동안 수녀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6. 교구 다문화 행사

- * 일시 : 2025년 7월 18일 (금) 오후 6시 30분
- * 미사 : 마이클 버빗지 주교님과 사제단 공동 집전
- 장소 : St. Thomas More 주교좌 성당,
3901 Cathedral Lane, Arlington, VA
- * 미사 후 리셉션(다민족 음식, 공연)
- * 교구 다문화국에서 주최하는 다민족 공동체를 미사를 마이클 버빗지 주교님을 모시고 미사와 각국의 문화 공연, 음식 나누기 등 가톨릭 신앙의 풍부한 다양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7. 과달루페 성모님 성지 순례 재모임 안내

- * 일시 : 7월 27일(일) 11시 30분
- * 과달루페 성모님 성지 순례를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7월 27일(일) 교중 미사 후에 친교실(A-1,2)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준비사항 등의 안내를 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성지 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신앙을 돌아보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출발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순례 중에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녀온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입니다.

□ 8. 동중부 KCLC 8박 9일 침묵 피정 안내

- * 일시: 8월 1일 (금)-8월 9일 (토)
- * 장소 : Loyola Retreat House MD
- * 지도 신부님 : 최재석 프란치스코
- * 신청 : 7월 20일 (일)까지, 피정비 \$ 985
- * 피정 주제 :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 * 문의 : 김영옥 실비아 (703)969-5067,
pig20147@yahoo.com,
이데레사 (571)224-2888,
theresahardaway1957@gmail.com
- * 개인 피정이라도 본당 이름으로 참석하시는 것이니, 출발 전 본당 신부님의 축복을 받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종욱(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축하드리며, 본당 교우분들이 마음을 담아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7월 5일(토)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6월 29일 (연중 제 13주일)

봉헌금 -----	\$ 7,885.00
교무금 -----	\$ 7,140.00
교무금 (신용카드)-----	\$ 2,330.00
2차헌금 -----	\$ 10,957.00
온라인 봉헌 -----	\$ 3,230.00
합계 -----	\$ 31,542.00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 2025년 7월 17일(목) 오후 5:00 - 6:00
- 2025년 7월 18일(금) 저녁 8:00 - 9:00
- 2025년 7월 20일(일) 오전 6:00 - 7:00

- 가톨릭 소식
- 주일강론
- 가톨릭 영상교리 : 교해성사
- 미니 시리즈 순례 : 제 10회 파티마 성모님과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를

교중미사 예물봉헌

7/06 이번주	버크 3반
7/13 다음주	버크 4반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